

## 멜로드라마로 본 「숙영낭자전」

윤정안\*

### <목 차>

1. 「숙영낭자전」을 이해하기 위한 질문
2. 멜로드라마를 만드는 통속적인 장치들
3. 정절 우위의 논리
4. 전유된 가치와 이데올로기의 균열

### [국문초록]

이 연구는 어떻게 가부장의 권위를 부정하는 이야기가 인기를 끌 수 있었는가를 질문을 통해 「숙영낭자전」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그러기 위해서 멜로드라마의 관점에서 「숙영낭자전」을 살펴봄으로써 숙영낭자를 서사의 중심에 놓고 「숙영낭자전」을 독해하고자 하였다.

멜로드라마의 관점에서 「숙영낭자전」을 보기 위해서 우선 「숙영낭자전」을 멜로드라마로 만드는 통속적인 장치들을 찾아보았다. 자유연애와 혼인의 과정에서 숙영낭자는 선녀나 꿈 등의 장치를 통해서 부득이한 상황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선군과 혼인한 것으로 묘사된다. 궤절의 누명을 벗는 과정에서 숙영낭자는 정절을 수호하는 여성으로 그려지며, 그 과정에서 백공과 매월은 악인의 역할을 부여받는다. 이때 숙영낭자는 정절을 철저히 지키는 여성이라는 점이 강조되며, 이것은 다른 가치보다 우위에 있다는 정절 지상주의의 논리를 통해 유교적 가치를 전유하였기에 가능했다. 전유된 이데올로기는 독자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었으나 한편으로는 이데올로기 자체의 결함을 드러냄으로써 전복의 가능성을 내포한다.

\* 서울시립대학교 교양교육부 강의전담객원교수

[주제어] 숙영낭자전, 통속소설, 멜로드라마, 정절, 정절 지상주의, 이데올로기, 전유, 균열, 결합, 전복

## 1. 「숙영낭자전」을 이해하기 위한 질문

「숙영낭자전」은 160여 종의 이본이 존재하며<sup>1)</sup>, 이외에도 서사민요, 판소리 등으로도 만들어졌고,<sup>2)</sup>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을 만큼 인기가 많았던 작품이다. 특히 안동 지역의 여성들을 중심으로 향유되었으며<sup>3)</sup>, 방각본으로 만들어져 전국적으로 유행했던 독특한 이력을 가진 작품이다.

김일렬은 「숙영낭자전」의 주제를 애정과 효의 대립으로 보고, 애정을 더 우선시 하는 작품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sup>4)</sup> 이 논의를 좀 더 연장해보면 「숙영낭자전」은 봉건적 질서인 효보다 남녀의 애정을 더욱 중시하는 ‘근대성’을 드러내는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숙영낭자전」에 나타나는 애정의 문제를 전면화한 것을 근대성의 문제로 바로 해석할 수 있는가? 여기서의 ‘근대성’은 봉건적인 질서에 반한다는 것인데, 봉건 윤리인 정절의 논리를 내면화 한 숙영낭자의 모습은 근대성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sup>5)</sup> 애정과 정절이라는 모순된 두 가치가 함께 강조된다는 점에서 「숙영낭자전」이 근대적인 면모를 지니는 작품이라는 해석은 「숙영낭자전」의 실상을 온전히 드러내는가? 또한 가부장의 권위가 사정없이 내팽개쳐지는 과정을 드러내는 이야기가 어떻게 당대인들의 인기를 얻을 수 있었는지도 온전히 설명하지 못한다.<sup>6)</sup>

1) 김선현, 「「숙영낭자전」의 이본과 공간 의식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5, 36쪽.

2) 김호열, 「「숙영낭자전」 서사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3) 김선현, 앞의 글, 36~50쪽.

4) 김일렬, 『「숙영낭자전」 연구』, 역락, 1999.

5) 숙영낭자는 정절이 훼손되었다는 혐의에 대하여 옥장을 섬돌에 던짐으로써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한다. 그런데도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살을 한 것은 숙영낭자가 정절을 내면화한 것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숙영낭자가 정절을 강조한다고 해서 바로 숙영낭자를 봉건적인 인물로 보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여기서는 숙영낭자가 정절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점만을 언급하도록 한다.

6) 가부장제에 대한 불합리함을 품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소설이라는 통속적인 매체를 통해서 노골적으로 드러나기는 어렵다. 조선후기에 가부장제를 거부한다는 것은 체제를 부정한다는

한편 김일렬의 논의는 「숙영낭자전」의 주인공이 숙영낭자임에도 숙영낭자가 아닌 선군을 해석의 중심에 둔다는 점에서 「숙영낭자전」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숙영낭자전」은 숙영낭자의 고난과 극복에 초점을 맞춘 작품으로, 숙영낭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므로 주제의 구현은 무엇보다도 숙영낭자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사건에 있다.

이런 점에서 이기대의 논의는 주목된다. 이기대는 여성 주인공인 숙영낭자와 시아버지인 백공의 갈등을 중심으로 「숙영낭자전」을 해석한다.<sup>7)</sup> 이 논의는 “며느리는 왜 박해받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작품 내에서 갈등의 주체를 숙영낭자와 백공으로 두기 때문에 숙영낭자의 면모가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질문은 갈등의 양상에 한정된다. 작품의 면모를 더 잘 드러내기 위해서는 “며느리는 어떻게 시아버지의 박대를 이기고 선군과의 사랑을 완성시켰는가?”라는 질문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작품의 전체를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질문은 무엇보다도 「숙영낭자전」이 통속소설이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두 남녀의 사랑 추구와 이를 방해하는 존재의 등장, 그리고 끝내 이를 극복하는 서사는 통속소설의 단골 소재이다. 또한 「숙영낭자전」은 필사의 형태로 안동 지방의 여성 독자들에게 인기를 끌었고, 방각본과 활자본으로 만들어졌음은 물론 다른 장르로까지 향유되었다는 점은 이 작품이 통속적으로 성공한 이야기라는 것을 방증한다. 시아버지의 박대는 두 남녀의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로 볼 수 있고, 그 사랑의 완성은 통속적 서사의 구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통속소설의 주인공으로서 숙영낭자는 다뤄질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기존 연구들 역시 「숙영낭자전」을 통속소설의 범주에서 살펴보았다. 윤정안은 「숙영낭자전」을 통속소설로 전제하고 「숙영낭자전」을 통해 조선 후기 여성의 이상적인 연애와 결혼, 배우자에 대한 관념을 탐색한 바 있다.<sup>8)</sup> 그러나 그 욕망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어떤 작동

의미라는 점에서 이러한 해석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7) 이기대, 「시아버지에 의한 며느리 박해의 소설화 양상」, 『우리어문연구』 30, 우리어문학회, 2008.

8) 윤정안, 「「숙영낭자전」을 통해 본 조선 후기 여성의 이상적인 연애, 결혼, 배우자에 대한 관념」, 『여성문화의 새로운 시각』 8, 월인, 2011, 291~307쪽.

원리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이후의 연구들도 대동소이한 관점에서 진행되었다. 김미령은 ‘대중성’이라는 관점에서 「숙영낭자전」을 바라보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을 독자의 시각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했다.<sup>9)</sup> 「숙영낭자전」은 정절 이데올로기의 모순 등 현실의 모순을 기저에 깔면서도 당대 대중의 욕구에 충실했기 때문에 대중성을 떨 수 있다고 했다. 이유경은 「숙영낭자전」이 낭만적 사랑 이야기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작품의 의미를 기존 결혼 제도의 비판으로 읽고 있다.<sup>10)</sup> 서혜은은 「숙영낭자전」이 안동 지역에서 주로 유통되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영남의 서사로 명명한다.<sup>11)</sup> 그러면서 영남 지역의 몰락 양반들의 가문 의식과 조선 후기 정절 이데올로기로 인한 영남 지역 여성들의 수난을 배경으로 「숙영낭자전」이 성립된 낭만적 이야기로, 이러한 점을 대중적인 인기를 얻은 비결로 파악한다.<sup>12)</sup>

「숙영낭자전」을 통속소설로 본 기존 논의들은 이 작품이 어떤 점이 통속적인가, 그것은 왜 인기를 끌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의 핵심은 당대 여성 독자들의 ‘욕망’이다. 낭만적이며 통속적인 서사인 「숙영낭자전」은 정절 이데올로기에 의해 희생되는 숙영낭자를 통해 현실의 모순을 드러낸다. 동시에 이상적인 남편인 선군에 의해 숙영낭자의 억울함이 해소되는 것은 봉건적인 제도에 대한 거부와 수평적인 부부의 사랑을 강조하는 근대적인 지향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들은 김일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숙영낭자전」이 가부장제의 권위를 부정하는 불온한 이야기임에도 어떻게 당대 독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는가를 해명하지 못한다. 또한 정절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지

9) 김미령, 「「숙영낭자전」 서사에 나타나는 대중성」, 『남도문화연구』 25,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2013, 197쪽.

10) 이유경, 「낭만적 사랑이야기로서의 「숙영낭자전」 연구」, 『고전문학과 교육』 28,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4.

11) 서혜은, 「영남의 서사 「숙영낭자전」의 대중화 양상과 그 의미」, 『인문연구』 74,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

12) 그러나 「숙영낭자전」이 방각본으로 만들어졌으며 다른 장르로까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과연 이것을 영남 지역의 특성만이 반영하고 있는가는 의문이다. 조선후기의 보수적인 가문의식이나 정절 이데올로기로 인한 여성의 수난은 안동 지방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키려는 숙영낭자가 수평적인 부부 관계라는 근대적인 지향을 보여준다는 모순도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숙영낭자전」을 통속적인 이야기로 읽기 위해서는 또 다른 질문이 필요하다. 이 질문은 “「숙영낭자전」의 통속성을 보장하는 작동 원리가 무엇이나” 정도가 될 것이다. 이는 앞에서 던졌던 “며느리는 어떻게 시아버지의 박대를 이기고 선군과의 사랑을 완성시켰는가?”라는 질문과도 연결된다. 숙영낭자는 가부장인 백공과의 갈등을 극복하고 선군과 완전한 결합을 이룬다. 이 과정이 통속적인 서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것이 가능하게 된 작동 원리가 무엇인가를 해명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멜로드라마’의 관점에서 「숙영낭자전」을 바라보고자 한다. 대개 멜로드라마는 “‘장애가 많은 연애 이야기’를 통칭하는 포괄적인 서사 장르 개념으로 통용”<sup>13)</sup>된다. 숙영낭자와 선군의 연애는 별다른 장애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의 결혼 생활은 선군의 부재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선군이 과거 시험을 보고 돌아와 숙영낭자를 살리는 것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최종적인 결합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숙영낭자전」은 멜로드라마의 성격을 엿볼 수 있다.

또한 멜로드라마에서는 “대개 선악이나 미추 등 이분법적으로 대비되는 ‘평면적인 인물들’이 ‘비약과 우연성’이 심한 사건 전개 속에서 ‘과장된 연기와 극적 장치를 통해 일정한 감정의 반복적인 강조나 과도한 감정 이입을 유도’하곤 하는데, 이러한 요소들이 ‘감정의 과잉’을 형성”<sup>14)</sup>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sup>15)</sup> 「숙영낭자전」의 인물들 역시 숙영낭자라는 선인과 백공이나 매월이라는 악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sup>16)</sup>, 이 평면적인 인물들의 갈등을 서사의 중심축으로 삼아 과잉된 감정 표현을 통해 독자의 공감을 유도한다.

13) 대중서사장르연구회, 『대중서사의 모든 것: 1. 멜로드라마』, 이론과 실천, 2007, 13쪽.

14) 위의 글, 13쪽.

15) 멜로드라마에 대한 다른 연구에서는 그 정의를 “유형적 또는 고정적 인물들이 선정적 사건이거나 도덕 문제의 흑백을 가리려는 사건을 펼쳐나가는, 시적 정의에 대한 작용 또는 권선징악의 드라마 양식”(윤석진, 『한국 멜로드라마의 근대적 상상력』, 푸른사상, 2004, 25쪽.)라고 한다.

16) 백공은 악인의 형상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여지는 있지만, 백공이 악인의 역할, 즉 숙영낭자와 선군의 사랑을 방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에 대해서는 2장에서 자세히 고찰하기로 한다.

이 글에서 멜로드라마라는 개념을 사용하려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숙영낭자를 중심에 두고 작품을 읽기 위함이다. 멜로드라마로 불리는 작품들은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여성의 고난과 극복을 다룬다. 「숙영낭자전」 역시 숙영낭자의 고난과 극복이 서사의 중심에 있으므로 숙영낭자를 둘러싼 갈등에 초점을 두고 작품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는 「숙영낭자전」의 주 독자층인 여성들의 욕망을 읽어내는 데도 유용할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갈등의 주체를 선군과 백공으로 보거나, 작품 속에서 갈등을 빚는 가치들에 주목하고 있어서 숙영낭자에 초점을 맞추고 작품을 읽지 못하였다. 멜로드라마라는 개념으로 작품을 보려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작품의 실상에 좀 더 접근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sup>17)</sup>

이와 함께 숙영낭자와 선군의 사랑이 쟁취되는 과정의 정당성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데도 멜로드라마라는 개념은 유용하다. 멜로드라마의 특징은 결연에 있는데, 이때 비유가적인 명분으로 결연이 이루어지는 논리가 무엇인가를 따지는 것은 「숙영낭자전」의 특성을 드러내는 요체일 것이다.

멜로드라마의 관점에서 「숙영낭자전」을 보기 위해서는 우선 「숙영낭자전」을 멜로드라마로 만드는 통속적인 장치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그것들이 작품 내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으며, 그것들의 공통성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나면 「숙영낭자전」이 당대 독자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원리’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마지막 장에서는 「숙영낭자전」의 의미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sup>18)</sup>

17) 멜로드라마를 하나의 장르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멜로드라마는 관습적인 장르 규정일 뿐이고, 실제로는 “작품의 정체성을 명시하지 못”(이다은, 「멜로드라마의 관습적 장르 규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현대문학이론연구』 45, 현대문학이론학회, 2011, 330쪽.)하며 “한국에서 멜로드라마는 특정 장르로서라기보다는 한국적 극의 보편적 특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존재”(위의 글, 338쪽.)하는 것으로 파악되기도 한다. 이 글에서 사용하는 멜로드라마라는 개념은 남녀 주인공의 애정 문제로 촉발되는 다양한 서사를 다루는 정도의, 앞서 대중서사장르연구회가 사용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개념 정도임을 밝혀 둔다.

18) 이 글에서 사용할 이본은 「숙영낭자전」의 선본으로 평가받은 대영박물관 28장본(경관 28장본)을 주대본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본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고, 특히 결말부는 다양하게 분화하며 이는 이 글에서 주요하게 논의될 지점 중의 하나이므로 필요에 따라서 다른 이본들도 참고하겠다.

## 2. 멜로드라마를 만드는 통속적인 장치들

### 2.1. 자유로운 연애와 혼인을 위한 장치들

「숙영낭자전」의 초반부는 숙영낭자와 선군의 연애로 채워져 있다. 이들은 부모의 허락도 없이 사사로이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혼인을 이룬다. 이는 자유연애에 대한 욕망으로 읽을 수 있다.<sup>19)</sup>

근대 이전의 동아시아 사회에서 남녀의 혼인은 오로지 중매라는 제도에 의해서만 가능했다. 시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남녀의 사사로운 만남은 공식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았다.<sup>20)</sup> 더구나 조선후기로 오면 정절 이데올로기가 교조화되면서 미혼의 남녀가 사사로이 만난다는 혐의만으로도 여성은 죽을 수도 있었다. 「장화홍련전」 등 조선후기의 소설들에서는 이러한 당대 사회의 상황을 엿볼 수 있다. 그러므로 숙영낭자와 선군의 사사로운 연애는 숙영낭자가 당대 윤리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쓰는 것은 물론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그래서 고전소설의 사사로운 연애는 불가피함을 피력하는데, 「숙영낭자전」에서 숙영낭자와 선군의 연애는 직접 만나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장치들을 통해 경유된다는 특성을 보여준다.

자유연애를 위해 가장 먼저 설정된 장치는 선녀라는 숙영낭자의 신분이다. 선군은 적강한 신선으로,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채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숙영낭자는 선녀라는 신분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옥련동이라는 지상이면서도 선계로 표상되는 경계의 공간에 거주하고 있다.

숙영낭자는 선녀로 표상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여러 제약을 피할 수 있다. 숙영낭자는 자신과 선군의 모든 일을 기억하고 있으며, 선군의 꿈에 나타나서 천정으로 뗏어진 자신과 선군의 인연을 말할 수 있었다. 즉, 숙영낭자가 선녀라는 설정은 여성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환상적인 수단을 통해서 선군과 만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한 것이며, 이를 통해 자유로운 연

19) 기존의 논의 역시 이 부분을 낭만적 사랑 혹은 자유연애에 대한 욕망으로 읽은 바 있다(김미령, 「『금기』 코드로 풀어보는 「숙영낭자전」의 여성주의적 시각」, 『한국언어문학』 90, 한국언어문학회, 2014, 110쪽; 서혜은, 앞의 글; 이유경, 앞의 글).

20) 이에 대해서는 장징의 논의(장징 저, 이용주 역, 『사랑의 중국 문명사』, 이학사, 2004.)를 참고할 수 있다. 이 책은 중국의 경우를 다루고 있지만, 혼인과 관련된 다양한 사항들은 동아시아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애는 가능하게 된다.

한편 선녀라는 숙영낭자의 신분은 그녀가 머물고 있는 옥련동의 성격을 함께 고려해 보면 기생을 떠올리게 한다. 기존 논의에서 옥련동은 숙영낭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의 의미를 획득한 것으로 이해되었다.<sup>21)</sup> 그런데 한편으로는 옥련동의 화려한 풍광과 숙영낭자를 선녀로 표상하면서 빼어난 외모를 지닌 여성으로 묘사하는 것은 옥련동을 기루로, 숙영낭자를 기생으로 은유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sup>22)</sup> 그러나 「숙영낭자전」의 독자층이 사대부가의 여성임을 고려한다면 여기서의 숙영낭자의 형상은 기생이라기보다는 천한 신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여기서의 천한 신분은 신분 자체의 천함보다는 시댁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은유하는 것으로 독해할 수 있을 듯하다.<sup>23)</sup>

그러므로 선녀라는 설정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서 자유연애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임과 동시에 가정 내에서의 낮은 지위를 은유하는 장치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당대 여성의 현실을 은유적으로 드러내는 것임과 동시에 멜로드라마에서 여성주인공의 빈약한 위치를 드러내는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꿈이라는 소재 역시 자유연애를 위한 장치이다. 「숙영낭자전」의 서사는

21) 김선현, 「「숙영낭자전」에 나타난 여성 해방 공간, 옥련동」, 『고전문학과 교육』 21,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1; 서유석, 「고소설에 나타나는 여성적 공간과 장소의 의미 연구 - <숙영낭자전>의 ‘옥련동’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58, 중앙어문학회, 2014.

22) 윤정안은 당전기인 「유선굴」의 예를 통해 옥련동과 숙영낭자를 기루와 기생의 은유로 읽은 바 있다(윤정안, 「고전소설의 여성 冤鬼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7, 124쪽). 이러한 은유는 한편으로는 숙영낭자의 빼어난 외모를 드러내는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23) 숙영낭자의 신분에 대하여 이기대는 숙영낭자의 신분이 “백선군과 같은 사족의 여성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백선군의 숙영에 대한 상상병도 일찍부터 백선군과 숙영의 만남이 실제로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하였다(이기대, 앞의 글, 448쪽). 조혜란 역시 숙영낭자를 “근본을 알 수 없는”(조혜란, 『옛 여인에 빠지다』, 마음산책, 2014, 181쪽) 여성으로 파악한 바 있다. 이는 숙영낭자가 신분이 낮다는 것에 대한 지적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 독자들이 가정 내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비정하는 방식의 하나로 읽을 수 있다. 부모의 보호 아래서 살던 때와 달리 혼인 이후 시댁으로 거처를 옮기게 된 여성은 고립무원의 처지가 된다. 비록 노복의 처지는 아니지만, 당대 유교 윤리는 혼인한 여성에게 심한 격리감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처지를 신분 낮음에 비유한 것으로 읽을 수 있다.



선군의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두 사람이 맺어진 것처럼 보인다. 선군은 꿈에서 만난 숙영낭자에게 반해 상사병에 걸리고, 직접 옥련동으로 찾아와 구애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그러나 선군의 이와 같은 행동은 꿈에서 숙영낭자를 만난 이후 벌어진 일들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선군의 행동은 숙영낭자의 유혹으로 인해 벌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sup>24)</sup>

숙영낭자는 선군의 꿈에 나타나 자신의 존재를 알림으로써 선군은 사랑의 열병에 빠졌으며, 상사병에 고통스러워하는 선군에게 매월을 취하라고 권하기도 한다. 그래도 선군의 병이 해결이 되지 않자 숙영낭자는 부득이 선군에게 옥련동으로 와서 자신과 직접 만날 것을 제안한다. 선군은 숙영낭자의 말대로 행동하였으며, 그 결과 아직 애틋이 남아 있는 두 사람의 인연은 맺어질 수 있었다. 이처럼 꿈을 통해 숙영낭자는 적극적으로 선군을 유혹하였다. 그러나 직접 행동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애의 주도성은 은폐되고 숙영낭자는 ‘조신’한 여성으로 그려진다.

조선 시대의 부부는 부모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었다. 두 남녀는 혼인하는 날이 되기 전에는 서로의 얼굴도 몰랐다. 그러나 자신이 마음에 드는 여성과 만나 연애를 하고 혼인을 하고자 하는 욕망은 어느 시대에도 있었다.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대개 연애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심리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많은 고전소설에서 남녀의 사사로운 연애는 불가피한 것이나 천정의 인연으로 포장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김유신의 부모인 김서현과 만명부인은 야합으로 모든 지위를 상실해야 했고, 평강공주는 온달을 당당한 장부로 만들기 전까지 왕실의 일원에서 배제되었다. 부모가 허락하지 않은 혼인은 가족으로부터, 가문으로부터 허락되지 않았다. 더구나 그 혼인을 여성이 주도한 경우 여성은 심각한 윤리적 비난에 직면하였다.

「숙영낭자전」에서 숙영낭자는 이러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 꿈이라는 장치를 활용한다. 기획은 숙영낭자가 하지만 실행은 선군이 맡는다. 마음에 드는 남성에게 먼저 접근하여 유혹하고 연애를 하여 혼인에 이르는 과정의 주도권은 여성이 쥐고 있지만, 비난을 피하기 위해 꿈이라는 장치를 활용하여

24) 윤정안(2011), 앞의 글, 296쪽.

수동적인 인물처럼 꾸민다. 그럼으로써 여성은 조신하면서도 약자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한다. 이 역시 멜로드라마에서 자주 봤던 여성 인물의 모습이다.

마지막으로 매월이라는 인물 역시 멜로드라마를 만드는 통속적인 장치 가운데 하나로 읽을 수 있다. 매월은 본래 선군 집안의 시비였지만 숙영남자의 권유에 의해 선군의 첩이 되는 인물이다. 그런데 선군은 매월을 들이 고서도 숙영남자를 잊지 못해 더욱 심한 사랑의 열병에 빠지게 된다.

이때 매월은 단순히 선군의 성적 욕망의 충족을 위해 선택된 존재이다. 여기에는 매월의 욕망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매월은 당대 혼인제도로 인해 희생되는 인물이다. 그녀는 오로지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입되어 선군 마음대로 탐닉되는 대상에 불과했다. 그러나 선군이 원한 것은 숙영남자였기 때문에 매월은 곧 버려진다.<sup>25)</sup>

매월의 존재는 숙영남자와 선군의 사랑이 단순한 성적 결합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다. 남성은 여성의 성을 탐닉하기 위해 여성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우려는 매월을 통해 해소된다.<sup>26)</sup> 성적으로 마음껏 농락할 수 있는 대상인 매월이 있음에도 선군은 꿈에서 몇 번 본 사이인 숙영남자만을 그리워한다. 이를 통해 숙영남자는 선군의 사랑이 지고지순한 것임을 확인한다. 동시에 숙영남자의 사랑도 성욕과 육체로 오염된 것이 아닌 순결한 것임이 드러난다. 이는 곧 숙영남자와 선군의 사랑이 외부의 불온한 것이 개입되지 않은 ‘진정’한 것임을 의미한다.

이처럼 「숙영남자전」의 초반부는 당대 여성들의 자유연애에 대한 욕망을 드러내지만, 여러 장치들을 통해 숙영남자는 결코 당대 이데올로기에 어긋나는 형상으로 그려지지 않는다. 숙영남자는 정숙한 여인으로 형상화되지만, 선군과 진정한 사랑을 나누면서 어쩔 수 없이 운우지정을 맺게 되는 것으로

25) 매월의 이러한 처지는 작품 중반부에 다시 등장하여 숙영남자를 모해하는 악인이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처절갈등을 다룬 작품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작품 내에서는 왜 매월이 악인이 되어야 했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26) 숙영남자가 매월을 통해 선군의 성욕을 해소하라고 했던 점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숙영남자가 기생일 혐의를 강하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기생인 숙영남자와의 관계는 성을 통해 매개되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여성, 즉 매월을 통해 충족해 보라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기서의 핵심은 숙영남자가 그만큼 가정 내에서 지위가 낮았다는 것을 드러내는 동시에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정도로 아름다운 여성임을 드러내는 소재로 기생의 은유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진다. 숙영낭자는 정해진 기한을 채워 액을 없앤 이후 욕례를 올리려고 했지만 선군의 상사병과 그의 열망 때문에 불가피하게 몸을 허락하고 혼인하는 것으로 묘사되면서 숙영낭자는 결코 경박한 여성이 아님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들의 사랑은 부모로부터 인정받지는 못한다. 그들은 욕례도 올리지 못한 사이라는 것은 비록 아이를 둘 낳고 살아가지만 비정상적인 부부임을 드러낸다. 애초에 백공 부부가 두 사람의 관계를 인정했던 것은 선군의 병이 나왔기 때문이지, 숙영낭자가 마음에 들어서는 아니었다.<sup>27)</sup> 다 죽어가던 외동아들이 멀쩡하게 돌아온 기쁨 때문에 백공 부부는 숙영낭자를 받아들였던 것이다.

「숙영낭자전」의 향유층들은 자유연애로 인한 혼인은 비정상적인 것이므로 가문의 외동아들을 병에서 구했다는 명분으로 집안으로 진입은 할 수 있지만, 정식 혼인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었다고 생각했던 듯하다. 동시에 집안에서 불안한 위치를 보여주는 장치가 되기도 한다. 시아버지인 백공은 선군이 집을 떠나자 밤마다 집을 살피는데 이는 “선군이 부재하기 때문”<sup>28)</sup>이다. 이는 남편이 없는 숙영낭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숙영낭자에 대한 백공의 의심도 엿볼 수 있다. 선군이 없는 상태에서 백공은 숙영낭자의 거처인 동별당을 살피는데, 이때 몰래한 선군의 출입은 백공의 의심을 사게 되어 본격적인 갈등으로 번지게 된다. 다음 절에서는 이 갈등의 장면과 해결을 위한 장치들이 어떻게 멜로드라마를 구성해 나가는지 살펴보겠다.

## 2.2. 궤절의 누명과 극복을 위한 장치들

멜로드라마에는 늘 사랑의 방해자가 등장한다. 대개 남성 주인공을 욕망하는 악한 여성이 그 자리의 중심을 차지하는데, 매월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특이하게 「숙영낭자전」에서는 가부장이자 숙영낭자의 시아버지인 백공 역시 그 역할의 중추를 담당한다.

27) 이기대는 “백선군이 결연의 대상으로 숙영을 데리고 왔을 때, 부모가 기뻐했던 이유는 백선군과 숙영과 결연했다는 점에서가 아니라 백선군의 병이 완쾌되어 돌아왔기 때문”(이기대, 앞의 글, 446쪽.)으로 본다.

28) 서유석, 앞의 글, 185쪽.

백공은 집안의 외동아들인 선군이 과거시험에 통과하여 가문을 빛내주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숙영낭자와의 사랑에 빠져 있는 선군은 과거 따위는 관심도 보이지 않는다. 숙영낭자 덕분에 사랑의 열병에서 벗어난 아들이 기꺼워 근본도 모르는 숙영낭자를 받아들였던 백공은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숙영낭자와 갈등의 국면으로 진입한다.

백공이 선군을 경성의 바니고 집안의 도적을 샅피려 하고 청녀장을 지이고 단장 안으로 단녀 동별당의 다다라는 낭주의 방의 남주의 소리 은은이 들니거 놀백공이 이윽히 듯다가 가마니 혀오디 낭주의 빙옥지심과 송백지절노 엇지 외간 남주를 스통하여 음형지스를 감심하리오 그리하는 세상스를 이루 충양치 못하리라 하고 가마니 스창 압히 나아가 귀를 기우려 드른즉 낭지 이윽히 말 허다가 같오디식부게서 박기와 계신가 시부니 낭군은 몸을 침금의 감쥬소서 하며 다시 아회를 달녀어 왓 너희 아바니는 장원급제 하여 영패로이 도라 오는이라 하고 아회를 어루만지거늘 백공이 크게 의심하고 급히 침소로 도라 오니라<sup>29)</sup>

위의 인용문은 선군이 부재하자 동별당을 샅피는 백공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데 머느리가 혼자 있어야 할 방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니 이를 외간 남자의 목소리로 의심한다. 여기에는 숙영낭자를 믿지 못하는 백공의 의심이 저변에 깔려 있지만, 남편이 없는 방에서 들리는 남자의 목소리를 외간남자의 것으로 인식하는 생각 자체는 합리적이다. 하지만 직접 들어가 확인해 볼 수 없으니 매월을 시켜서 숙영낭자의 처소를 감시한다. 숙영낭자를 의심할 바는 아니지만,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다는 백공의 생각이 과하다고는 할 수 없다.

숙영낭자는 과거를 보러 간 남편이 돌아왔다고 할 수 없으니 시아버지의 의심을 알고서도 사실을 밝힐 수 없었다. 그러니 의심을 받는 것은 예정된 결과이다. 더구나 자신의 말은 듣지 않으면서 숙영낭자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듣는 아들의 행동은 가장이자 아버지로서 불쾌감을 가질 만한 상황이다.

29) 김선현 외, 「숙영낭자전 단」(대영박물관 28장본), 『숙영낭자전의 작품세계』 3, 보고사, 2014, 54쪽(이하 작품명과 쪽수만 표기).

선군은 아내에게는 더없이 이상적인 남편이지만<sup>30)</sup>, 아들로서는 불민한 자식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성 독자들에게 선군의 이러한 모습은 시댁과의 갈등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훌륭한 남편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며, 그 반대편에 선 백공은 악인으로 인식되기 쉽다. 이는 가정 내에서 약자로서 여성에게 벌어지는 다양한 차별과 억압을 시아버지라고 하는 가부장을 통해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sup>31)</sup>

「숙영낭자전」에서 백공은 합리적인 의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방해자로, 순결한 숙영낭자를 모해하는 존재로 그려질 뿐이다. 매월은 백공의 의심을 이용하여 선군의 마음을 돌리고자 숙영낭자를 모해하고, 이를 믿은 백공은 숙영낭자를 처단하고자 한다. 이로써 숙영낭자는 죽음의 위기에 내몰리게 된다. 이 과정은 숙영낭자가 옥잠을 높이 던져 섬돌에 박히게 되는 장면에서 절정에 이른다. 이를 통해 백공의 의심은 아무 근거도 없는 것임이 밝혀지면서 백공은 숙영낭자를 모해하는 악인으로 규정된다. 숙영낭자는 환상적인 수단을 통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데, 이로써 숙영낭자의 죽음으로 인해 숙영낭자와 선군의 결합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어진 장면은 비탄에 빠진 숙영낭자가 자살을 하는 장면으로 이어진다.<sup>32)</sup> 아들과 딸을 두고 자결을 감행한 숙영낭자의 신체는 움직이지 않고 전신되는데, 이를 통해 감정은 과잉되고 비극은 극대화되며 해결 불가능한 상황으로 사태는 악화된다. 그러나 숙영낭자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백공과 매월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음으로 갈등의 해결은 여전히 미완이다. 오히려 백공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생각은 하지 않고 또 다른 혼처를 구

30) 김미령 역시 선군을 “현실에서 결코 있을 법하지 않은 가장 ‘이상적인 남편’의 모습”(김미령 (2013), 앞의 글, 214쪽.)으로 파악한 바 있다.

31) 이러한 설정은 사건의 해결과도 관련된다. 후술하겠지만, 사건의 최종적인 해결은 자신의 절대적인 지지자인 선군이 가부장이 됨으로써 해결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전의 가부장에게 결합이 있어야 하므로 백공이 결합이 있는 인물로 설정된다.

32) 숙영의 자살은 “시아버지의 잘못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의미”(조혜란, 앞의 글, 185쪽.)로 이해되기도 했고, “머느리가 정절을 잃었다는 시아버지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결로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 것뿐”(이기대, 앞의 글, 453쪽.)이므로 벌어진 일로 파악되기도 했다. 혹은 백공과 매월이 죽지 않은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것”(윤정안(2017), 앞의 글, 127쪽.)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어느 쪽으로 해석되든 갈등은 더 심화된다는 점에서 숙영의 자살은 문제적이다.

해 선군과 혼인시켜 사건을 수습하고자 함으로써 갈등은 심화된다.<sup>33)</sup>

이처럼 「숙영낭자전」의 중반부는 숙영낭자의 정절을 둘러싼 사건으로 갈등이 점점 심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숙영낭자는 다시 한 번 선군의 꿈에 나타나 억울함을 호소하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선군이 집으로 돌아와 숙영낭자의 억울함을 푸는 것으로 사건이 종료된다. 숙영낭자의 절대적인 지지자인 선군이 돌아오자 사건은 일사천리로 해결되어, 매월은 처참하게 죽고, 백공은 무능력한 가부장임이 증명되면서 그 권위를 잃고 만다.

숙영낭자의 정절을 둘러싼 갈등은 지속적으로 고조되면서 작품의 긴장을 한껏 상승시켰다면, 선군의 복귀로 갈등은 순식간에 해결된다. 이는 선인이 고통을 받는 장면이 강조되다가 극의 말미에서 사건이 급작스레 역전되다는 멜로드라마로서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멜로드라마는 “주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억압받는 여성 등장인물의 수난을 주요 서사 전략으로 채택하면서 여성 관객과 호응을 같이 하”<sup>34)</sup>는데, 이는 멜로드라마의 주요 독자가 여성인 것과 관련된다. 그러므로 멜로드라마의 주인공은 대개 여성으로 설정되며, 「숙영낭자전」 역시 주인공을 숙영낭자라는 여성으로 내세워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인 정절에 억압받는 숙영낭자의 모습을 보여주어 당대 여성 독자들의 공감을 얻는 데 성공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멜로드라마의 장치들은 당대 이데올로기를 위반하는 데서 흥미성을 담보하고 있다. 즉, 자유연애와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는 남편에 대한 여성들의 욕망을 통해 당대 독자들, 특히 여성 독자들의 흥미를 자극함으로써 인기를 얻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당대 여성들은 “사랑의 유일성과 영원성을 실현하고 평등한 부부관계를 이루고 싶은<sup>35)</sup> 욕망을 대리 충족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숙영낭자전」은 당대 윤리들을 위반하고 있다는 데서 문제적이다. 비록 여러 장치들을 통해 정당화하고 있지만, 남녀의 사사로운 만남과 혼인은 물론 부모의 말은 거역하면서 아내에게만 빠져 있는 선군 역시 비난

33) 김일렬은 “시아버지 백공은 며느리를 억울하게 죽여 놓고도 책임 회피에나 열중하고 아들을 재혼시키기에 여념이 었었으니 친정 부모마저 없는 낭자에게는 더욱 가혹한 수난”(김일렬, 앞의 글, 74쪽.)이라고 파악하였다.

34) 윤석진, 앞의 글, 24쪽.

35) 이유경, 앞의 글, 183쪽.

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또한 그러한 것을 공공연하게 욕망하는 여성 역시 비난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당대 독자들은 이러한 비윤리성을 어떠한 명분을 내세워 극복하려 하는가? 다음 장에서는 「숙영낭자전」이 비윤리적인 면모가 어떤 논리를 통해 극복되고 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 3. 정절 우위의 논리

앞서 「숙영낭자전」에 사용된 여러 멜로드라마의 장치들은 당대 이데올로기에 반하는 것들이었다. 자유연애는 당대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았으며, 부모의 명을 거역하고 자신의 부인만을 위하는 남편 역시 당대 사회가 그리는 이상적인 적장자의 모습은 아니다. 「숙영낭자전」에서는 숙영낭자와 선군은 주인공으로서 욕망을 성취해야 하는 것으로 그려지지만, 유교적인 관점에서 이들은 비난받아야 할 인물들이다. 그런데도 작품에서 두 사람은 긍정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특히 숙영낭자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희생되는 인물로 묘사된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 숙영낭자에게 강조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숙영낭자가 자유연애 위해 동원한 방식은 스스로를 수동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이었다. 꿈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선군이 자신을 향해 움직이도록 했으며, 그런 선군에게 감격하여 마지못해 금기를 어긴 채 운우지정을 나누고 선군의 아내가 되었다. 또한 매월이 성적 대상인 것과 달리 숙영낭자는 선군과 진정한 사랑을 한다는 것과 천정의 인연을 강조하면서 둘의 사랑을 정당화시켰다. 비록 부모의 허락이 없는 결합이었으나 혼인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숙영낭자가 보여주는 일관적인 태도는 불가항력이므로 어쩔 수 없다는 논리이다. 결과적으로는 정절을 더럽힌 것이 되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게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여 선군과의 혼인에 이르렀다. 이를 통해 숙영낭자는 정숙한 여성으로 이미지화되었다.

백공의 집으로 들어온 이후 숙영낭자는 선군과의 행복한 삶을 사는 것으로 묘사된다. 둘은 진정한 사랑을 나누면서 슬하에 두 아이를 키우면서 부족함 없이 살아간다. 그러나 선군이 없는 숙영낭자는 정절을 의심받아 죽을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숙영낭자는 섬돌에 옥잠을 던지고 자결을 통해 “빙옥지심과 송벽지절”을 가진 여성인테 불민한 가부장과 악독한 첩으로 인해 의심받았음이 드러났다. 즉, 숙영낭자는 정절이라는 당대 이데올로기를 체화하고 있는 인물로 그려진다.

멜로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승리하는 이유는 선인이라는 명분 때문이다. 멜로드라마의 관객들은 여주인공이 윤리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녀를 지지하고 잘 되기를 바란다. 마찬가지로 「숙영낭자전」에서 숙영낭자는 ‘선인’으로 위치하면서 중국에는 ‘승리’하게 된다. 그 이유는 숙영낭자가 정절을 지켰기 때문이다. 여기에 선녀라는 고귀한 신분이면서 아름다운 여성이라는 점이 더해지면 숙영낭자는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선인으로 형상화된다.

반면 백공은 선인을 의심하는, 숙영낭자의 정절을 의심하고 억울한 누명을 씌워 죽이려는 악인으로서 ‘역할’을 부여받는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백공의 의심은 합리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백공은 가정 내에서, 특히 혼인을 한 여성이 시댁에서 여성에게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적용하여 억압하는 지배 질서의 정점에 위치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당대의 여성 독자들에게 악으로 형상화 될 위치에 있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본처의 위치를 위협하는 첩인 매월이 백공과 함께 악인으로 기능하면서 두 인물은 숙영낭자가 실절하였다는 누명을 씌워 제거하려 한다.

이처럼 「숙영낭자전」은 순결하고 정숙한 숙영낭자가 정절이 훼손되었다는 누명을 씌워 숙영낭자를 죽이려는 백공과 매월의 음모를 이겨내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한 이야기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구도에서 「숙영낭자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숙영낭자의 정절이다.

작품의 초반부터 숙영낭자는 자유연애라는 비유교적인 행동의 주체였지만 여러 장치들을 통해 수동적이고 불가피한 것으로 형상화되었다. 그 결과 숙영낭자는 순결하고 정숙한 여성으로 표상되었다. 선군과 혼인을 이룬 이후에도 숙영낭자에게 강조되었던 것은 정절이었다. 숙영낭자는 시종일관 정절을 지키고 있는 인물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행동은 정당성이 있고 보호받아야 하며 악인과의 갈등에서 승리해야 하는 인물이 된다. 정절을 지킨 숙영낭자는 모해를 이겨낼 마땅한 자격이 있는 인물인 것이다.

이는 정절 지상주의라고 명명할 수 있을 듯하다. 숙영낭자는 정절이라는



유교적인 이데올로기를 가장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는 여성이며, 이로 인해 가장 윤리적인 인물로 자리매김한다. 백공과 매월은 이러한 숙영낭자를 모해하는 존재이므로 마땅히 처단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매월은 죽고 백공은 가부장권을 선군에게 넘기게 된다.

이러한 논리는 「숙영낭자전」의 이본 변화에서도 감지된다. 숙영낭자의 죽음 이후 「숙영낭자전」의 이본들은 크게 넷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숙영낭자의 죽음 이후 선군과 함께 승천하는 유형이고, 두 번째는 다시 살아난 숙영낭자가 집으로 돌아와 백공 부부를 모시며 살아가는 유형이다. 세 번째 유형에서는 다시 살아난 숙영낭자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죽림동에 기거하고 임소저가 백공 부부의 봉양을 맡는다. 마지막 유형에서 숙영낭자는 선군의 두 번째 부인이 된 임소저와 함께 백공 부부를 봉양하며 살다가 승천하는 것으로 그려진다.<sup>36)</sup>

이 가운데 숙영낭자가 세 번째 유형은 매우 과격적이라 할 수 있다.<sup>37)</sup> 재생을 한 숙영낭자는 시부모를 모시지 않는 것으로 나온다. 시부모의 봉양은 선군의 두 번째 부인인 임소저의 몫으로 돌아간다. 이유경은 “시부의 정절 모해로 죽은 숙영낭자가 재생 후에 어디에서 누구와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는 이 작품의 본질적인 문제와도 매우 깊은 관련을 맺기 때문에 「숙영낭자전」의 후반부 내용에서 시부모와의 동거 여부는 매우 중요”<sup>38)</sup>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시부모와의 동거를 거부하는 숙영낭자의 모습은 당대 여성들이 시댁에 느끼는 불편함과 거부감을 드러낸 것이며, 시댁과 거리를 유지하고 싶은 당대 여성들의 욕망이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부모를 모시지 않는 며느리는 당대 윤리에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러한 심각한 윤리적 위반은 결말부에 위치하므로 작

36) 「숙영낭자전」의 결말 유형의 분류에 대해서는 김선현의 논의(김선현(2015), 앞의 글) 참고.

37) 김선현의 연구에 따르면 이에 해당하는 유형은 김선현이 확인한 80편의 이본 가운데 18편이 해당한다. 또한 이 연구에서 기타로 분류된 조동일 47장본 역시 재생한 숙영낭자가 시부모와 별거하는 화소가 등장한다(김선현, 「숙영낭자전」 이본 현황과 변모 양상 연구, 『어문연구』 42권 2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4, 131~133쪽 참고). 이렇게 따져보면 이 유형에 해당하는 이본은 전체 확인된 이본의 1/4을 차지하는 것으로,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8) 이유경, 앞의 글, 165쪽.

품 내에서 바로잡을 수 없다. 보통의 통속적인 고전소설들이 결말부에 가서는 윤리적인 마무리를 보여주는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이 비윤리적인 처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러한 당대 여성들의 욕망이 낱것으로 표출될 수 있었던 것은 숙영낭자가 백공보다 윤리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sup>39)</sup> 숙영낭자는 정절을 지킨 여성이고, 백공은 숙영낭자의 정절을 의심하여 숙영낭자를 죽일 뻔했다. 그러한 구도에서 숙영낭자는 비윤리적인 시부모의 봉양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정절이 가장 우위의 가치를 차지한다는 가치 체계에서 정절이 훼손되었다고 모해하려 한 부모의 봉양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가 성립하기 때문이다.<sup>40)</sup>

이와 같은 정절 우위의 논리는 숙영낭자가 임소저를 받아들이는 장면에서도 목격할 수 있다.

춘설 선군이 낭주 침실의 드러가 님녀의 설화를 전하여 님크르니 낭적 아름다히 여겨 왓 저 규슈 고집이 여일하여 세상 제홀 지경이 될진디 우리 남의게 적양이 될지라 싱각진디 쉬운 일이 이스니 낭군은 흐 번 거조하여 보미 만당 홀가 흐느이다 선군이 혼연 왓 무슴 일이뇨 낭적 왓 옥제게서 우리 삼인이 둥 일 승터흐리라 흐시던 일인즉 필연 님녀를 응흐미라 이믹 텃정이 이스미 엇지 가히 도망흐리오<sup>41)</sup>

임소저는 백공이 숙영낭자의 자결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선군의 정혼자로 정한 여성이다. 그러나 숙영낭자가 재생하게 되면서 임소저와의 혼인은 없던 일이 되고 만다. 그런데 임소저는 이미 선군과 정혼한 상태이므로 자

39) 그래서인지 선군에 의해 숙영낭자의 억울함이 풀린 이후 백공 부부는 작품의 문면에서 사라진다. 백공 부부에 대한 묘사는 죽음에 대한 의례적인 표현이 매우 짧게 표현될 뿐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

40) 이유경은 숙영낭자가 부모의 봉양을 거부하는 것을 “관습적 결혼제도에서 벗어나 사랑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유경, 앞의 글, 178쪽.)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효라는 가치를 수행해야 하는 숙영낭자와 선군이 왜 효라는 윤리적 덕목을 저버리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 욕망은 당대의 이데올로기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추구되어야 윤리적인 것으로 인정받는다. 그런데 시부모의 봉양을 거부하는 것은 당대 이데올로기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이며, 이는 통속소설의 결말로는 부적합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조화를 설명할 논리가 필요하다.

41) 「숙영낭전 단」(대영박물관 28장본), 44쪽.

신은 다른 남성과의 혼인이 불가하다고 선언한다. 그러면서 비록 “부모가 불화될지라도 츠라리 츠회하여 이비를 좇고저”<sup>42)</sup>한다고 말한다. 임소저 역시 효보다는 정절을 더 우위의 가치로 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숙영낭자는 이러한 임소저의 말을 듣고 아름답게 여긴다. 정절을 지키고 자 하는 의지가 뛰어나므로 함께할 수 있다는 숙영낭자의 의식은 정절을 가장 우위의 윤리로 삼는 생각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서도 여성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정절이라는 점, 즉 정절 지상주의가 엿보인다.

「숙영낭자전」을 관통하는 논리는 정절이 어떠한 윤리보다도 우위에 있다는 정절 지상주의이다. 멜로드라마의 여성 주인공들이 선택하는 이유로 위기를 극복하고 행복한 결말을 맞는 것처럼 「숙영낭자전」에서는 숙영낭자가 정절이라는 가치를 내면화하고 실행하고 있으므로 그 누구보다도 윤리적인다는 인식에서 구성된 서사임을 알 수 있다.

#### 4. 전유된 가치와 이데올로기의 균열

고전소설의 여성 인물들에게 정절은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정절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마다하지 않는다. 이는 당대 사회에서 여성에게 정절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정절의 훼손이 의심 받은 순간 변명의 여지없이 죽어야만 하는 당대 여성들의 처지는 숙영낭자의 모해 사건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숙영낭자전」에서의 정절은 다른 윤리적 가치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임을 강조한다는 데서 문제적이다.

이는 「숙영낭자전」의 주요 독자층이 여성이라는 점에서, 특히 필사자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동생을 시집보내며 눈물짓는 누이, 딸을 시집보내며 사돈에게 딸의 안위를 당부하는 어머니, 친정 부모와 형제의 안부를 묻는 여인들”<sup>43)</sup> 등 혼인과 연관된 여성들이라는 점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혼인 이후 다툼, 혹은 혼인 이후 다툼 시택에서의 고난은 당대의 여성들에

42) 위의 글, 43쪽.

43) 김선현(2015), 앞의 글, 49쪽.

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더구나 여기에 정절의 문제가 연결되면 죽음은 피할 수 없다. 이러한 불안은 정절을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 우위에 있다는 논리를 구축하여 심리적 위안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숙영낭자를 통해 「숙영낭자전」의 여성 독자들은 정절만 지키고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혹은 문제가 있어도 어떠한 방법으로든 해결될 것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시부모를 봉양하지 않아도 된다는 ‘헛된 희망’도 품을 수 있게 된다. 「숙영낭자전」의 여성 독자들은 정절을 자신을 속박하는 장치가 아니라 닦칠 수 있는 여러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장치로 專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방식은 여성뿐 아니라 당대인들에게 호응을 얻으면서 각각본은 물론 다른 장르로까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sup>44)</sup>

통속적이고 도식적인 서사 양식이 내용을 바꿔 가면서 지속되고 있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정서에 위배되는 현실 세계의 논리를 멜로드라마라는 허구 세계에서 표출함으로써 부당한 현실을 되새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객관적으로 현실의 도덕적 정의에 불평등한 조건이 존재하지만 ‘평등’이나 ‘자유’라는 ‘욕망’을 달성하기 위한 관념적 보상기제, 다시 말해 신화적 기능을 멜로드라마의 서사 양식이 담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sup>45)</sup>

멜로드라마는 그 내용이 바뀔지언정 통속적이고 도식적인 서사 구조를 통해 당대인들의 욕망을 표현한다. 이것은 허구의 세계에서 펼쳐지면서 현실의 모순을 감추기도 하지만, 반대로 욕망의 왜곡된 표출을 통해 현실의 부조리함이 드러나기도 한다. 결말에 가서는 그 부조리함이 아무 것도 아닌 척 넘어가지만, 그것은 낭만적인 처리, 즉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것이므로

44) 고은임은 국문장편소설의 여성인물들이 정절 이념을 轉用하여 자신들의 욕망을 드러내고 있음을 논증한 바 있다. 국문장편소설의 주 독자층인 여성들은 자신들을 억압하기 위해 남성들이 내세운 이념인 정절을 여성 스스로의 욕망을 위해 상황에 맞게 전용하여 쓰고 있음을 보여준다(고은임, 「국문장편소설 여성인물의 정절 이념 전용 양상」, 『고소설연구』 39, 한국고소설학회, 2015). 「숙영낭자전」의 숙영은 유교 이념을 정확히 지키고 있음을 내세워 이와 충돌하는 다른 유교적 관념은 지킬 필요가 없음을 강조한다는 데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유교적 관념이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어 균열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45) 윤석진, 앞의 글, 33쪽.

역시 관념적으로만 보상을 받을 뿐 현실에서의 불가능성은 여전히 증언중이다. 이처럼 위의 인용문은 멜로드라마가 결국은 현실의 균열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데, 「숙영낭자전」 역시 예외는 아니다.

「숙영낭자전」에서 전유된 정절은 유교적 가치들이 대립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며, 이는 당대의 유교 이데올로기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교적 가치들이 대립하게 되는 상황에서 무엇이 더 우선하느냐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숙영낭자전」의 독자들은 그 답을 정절에서 찾음으로써 정절만 잘 지킨다면 가부장의 무능함을 고발하고 심지어 봉양의 의무조차 벗어나도 된다는 사고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관념적 보상은 현실에서 허용될 리 없다.

전유된 정절 이데올로기는 독자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데올로기 자체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결함은 당대 질서에 균열을 내면서 전복의 가능성을 내포한다. 「숙영낭자전」의 서사가 꽤 오랫동안 독자들의 흥미를 끌고 공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심리적 안정과 더불어 바로 이 전복의 가능성에서 희열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 Ⅰ 참고문헌

### 〈자료〉

김선현 외, 『숙영낭자전의 작품세계』 1~3, 보고사, 2014.

### 〈단행본〉

김일렬, 『「숙영낭자전」 연구』, 역락, 1999.

대중서사장르연구회, 『대중서사의 모든 것: 1. 멜로드라마』, 이론과 실천, 2007, 13쪽.

윤석진, 『한국 멜로드라마의 근대적 상상력』, 푸른사상, 2004, 24~33쪽.

장정 저, 이용주 역, 『사랑의 중국 문명사』, 이학사, 2004.

조혜란, 『옛 여인에 빠지다』, 마음산책, 2014, 181~185쪽.

### 〈논문〉

고은임, 「국문장편소설 여성인물의 정절 이념 전용 양상」, 『고소설연구』 39, 한국고소설학회, 2015, 177~212쪽.

김미령, 「「숙영낭자전」 서사에 나타나는 대중성」, 『남도문화연구』 25,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2013, 195~220쪽.

김미령, 「「금기」 코드로 풀어보는 「숙영낭자전」의 여성주의적 시각」, 『한국언어문학』 90, 한국언어문학회, 2014, 131~160쪽.

김선현, 「「숙영낭자전」에 나타난 여성 해방 공간, 욕연동」, 『고전문학과 교육』 21,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1, 281~308쪽.

김선현, 「숙영낭자전」 이본 현황과 변모 양상 연구, 『어문연구』 42권 2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4, 125~155쪽.

김선현, 「「숙영낭자전」의 이본과 공간 의식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5, 36~50쪽.

김호열, 「「숙영낭자전」 서사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서유석, 「고소설에 나타나는 여성적 공간과 장소의 의미 연구 - 〈숙영낭자전〉의 ‘욕련동’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58, 중앙어문학회, 2014, 177~198쪽.

서혜은, 「영남의 서사 「숙영낭자전」의 대중화 양상과 그 의미」, 『인문연구』 74,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 105~140쪽.

윤정안, 「「숙영낭자전」을 통해 본 조선 후기 여성의 이상적인 연애, 결혼, 배우자에 대한 관념」, 『여성문화의 새로운 시각』 8, 월인, 2011, 291~307쪽.

윤정안, 「고전소설의 여성冤鬼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7, 124~127쪽.

이기대, 「시아버지에 의한 며느리 박해의 소설화 양상」, 『우리어문연구』 30, 우리어문학회, 2008, 435~460쪽.

이다운, 「멜로드라마의 관습적 장르 규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현대문학이론연구』 45, 현대문학이론학회, 2011, 327~343쪽.

이유경, 「낭만적 사랑이야기로서의 「숙영낭자전」 연구」, 『고전문학과 교육』 28,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4, 159~189쪽.

## *SukyeongNangjaJeon* viewed from the viewpoint of melodrama

Yoon, Jeong-ah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SukyeongNangjaJeon* by examining the popularity of a story that emphasizes denying patriarchal authority. This study examined *SukyeongNangjaJeon* from the viewpoint of melodrama. It attempted to read *SukyeongNangjaJeon* by placing SukyeongNangja at the center of the narrative.

First, it searched for popular devices that categorize *SukyeongNangjaJeon* as a melodrama. In the process of free love and marriage, SukyeongNangja is portrayed to be in a marriage with the Sungoon through devices such as fairy or dream. In the process of taking off the falsification that the fidelity is damaged, SukyeongNangja is depicted as a woman who maintains fidelity. Baekkong and Maewol are meant to fulfill the role of the wicked. This occurs through an appropriation of Confucian values with the logic of “fidelity Superficialism.” The appropriated ideology provides readers with psychological stability. However, it also implies the possibility of overthrow by exposing the defects of the ideology itself.

[Key words] *SukyeongNangjaJeon*, a popular novel, melodrama, fidelity, fidelity Superficialism, ideology, appropriation, crack, defect, overthrow

---

\* University of Seoul

이 논문은 2월 15일 접수되어 3월 13일 1차 심사를 거쳐  
3월 13일 게재 확정되었습니다.

〈필자 정보〉

성명: 윤정안

소속: 서울시립대학교

메일: aletheia01@naver.com